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카디안 코리아 인덱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은 한국거래소의 KOSPI200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KOSPI200 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KOSPI200지수를 추종하기 위해 주식현물 포트폴리오와 주가지수선물 등에 투자합니다.

- 주식현물 바스켓: KOSPI200지수와와 추적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100~150개 내외의 주식으로 바스켓 구성

- KOSPI200지수선물 매매: KOSPI200지수와 KOSPI200지수선물과의 차이인 베이스를 모니터링 하여 주식현물바스켓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경우 투자 실시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1,288억 원

-모투자신탁 1,281억 원

펀드유형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 모투자신탁 편입비: 90% 이상
- 모투자신탁 주식편입비: 60% 이상

설정일

(운용펀드 : 2008년 12월 08일)

- 클래스 A-E : 2014년 06월 11일
- 클래스 C-F : 2008년 12월 08일
- 클래스 C-P2(연금지축) : 2014년 05월 02일
- 클래스 S : 2014년 04월 22일

벤치마크 KOSPI200 100%

신탁업자 한국증권금융(수탁)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5시 30분 이전	2영업일	4영업일
15시 30분 경과후	3영업일	4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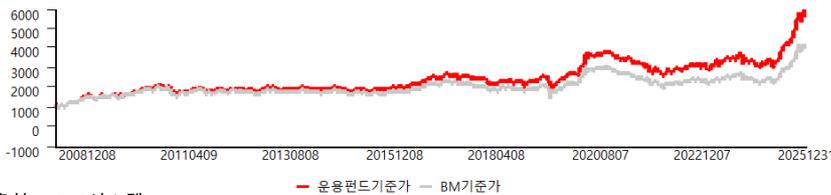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	---	---	---	---	---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설정 이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운용펀드	9.99%	28.80%	47.53%	95.86%	78.57%	123.78%	78.28%	495.60%
클래스 A-E	9.96%	28.69%	47.26%	95.16%	77.23%	121.29%	74.93%	194.32%
클래스 C-F	9.97%	28.72%	47.34%	95.36%	77.61%	122.00%	75.88%	468.70%
클래스 C-P2(연금저축)	9.94%	28.62%	47.10%	94.74%	76.44%	119.81%	72.96%	195.13%
클래스 S	9.96%	28.69%	47.27%	95.17%	77.26%	121.35%	75.01%	196.45%
벤치마크	9.38%	27.84%	46.16%	90.67%	69.27%	108.17%	55.66%	318.23%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판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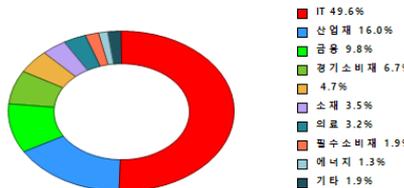


자산 구성 현황 (2025년 12월말, 모투자신탁 기준)

<전체>



<주식 업종별>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5년 12월말, 모투자신탁 기준 주식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삼성전자	전기.전자	25.9	SK스퀘어	금융	1.6
SK하이닉스	전기.전자	16.8	NAVER	IT 서비스	1.5
KODEX 200	기타	4.7	두산에너지리티	기계.장비	1.5
KB금융	금융	1.9	신한지주	금융	1.5
현대차	운송장비.부품	1.9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운송장비.부품	1.4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약속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A-E : 총 연 0.3825% (판매 0.15%)
- 클래스 C-F : 총 연 0.2725% (판매 0.04%)
- 클래스 C-P2(연금지축) : 총 연 0.6125% (판매 0.38%)
- 클래스 S : 총 연 0.3725% (판매 0.14%)

(공통사항)

운용 0.2%, 신탁 0.02%, 사무관리0.0125%

선취수수료

클래스 A-E : 납입금액의 0.25% 이내
클래스 C-F, C-P2(연금지축), S :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12월 KOSPI는 전월 대비 7.32% 상승한 4,214.17pt, KOSDAQ은 1.4% 상승한 925.47pt로 마감했습니다. 11월부터 지속된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으로 인한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일본 BOJ의 금리인상 우려 등이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12월 시장은 상승 마감했지만 11월부터 조정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라클 실적 전망치 하회 및 데이터센터 투자 철회, 브로드컴의 마진 둔화 불안감 등으로 KOSPI 지수는 4,000pt를 하회하기도 하였으나, 마이크론의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 메모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 기대감, 외국인 순매수 전환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는 AI 버블 우려가 희석된 반도체, 로봇과 자율주행 비즈니스 확대 가능성 기대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상승세를 보인 반면, 유틸리티, 화학, 화장품 등 실적 가시성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업종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정부의 환율 방어 움직임으로 1,433.9원으로 하락 마감했고, WTI 기준 국제유가는 전월 대비 하락한 57.9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5.2조원, 외국인 투자자는 3.5조원 순매수한 반면, 개인 투자자는 7.7조원 순매도하였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1월 국내 주식시장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11월과 12월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긴축 우려가 완화되었고, 마이크론 실적을 시작으로 다시 AI버블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면서 지수는 바닥을 다져왔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에너지, 식품 CPI를 감안 시 단기적으로 물가는 안정적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매크로 지표는 현재의 유동성 확대와 경기 호조세를 강하게 지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한국의 경우 강력한 정부 정책, 기업 실적 추정치 상향 흐름의 환경에서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에 따른 주식시장 지원책이 글로벌로도 차별화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AI테마의 확대. 수주 모멘텀 기반의 기존 주도주의 재상승 가능성과 CES 효과 등에 따른 새로운 테마의 출현 등 성장주 중심의 상승이 예상됩니다. 개별 기업의 이익 차별화가 나타나는 시점이라 판단하여 이익 모멘텀, 낙폭과대, 절대 저평가 팩터 중심의 접근 예정입니다. 낙폭과대 성장주 종목에 대해서는 trading 대응할 예정입니다. 매크로 변수 예측(환율, 유가, 금리)을 통한 선제적 trading 전략도 지속 수행 예정이고 실적 상향 종목에 대한 선제적 포지션 구축도 지속 예정입니다. 보호예수 해제, 기업분할, 유상증자 등 증가하는 기업 이벤트에 대해 트레이딩 전략으로 대응 예정입니다. BM복제율은 당분간 높게 유지할 계획이고. 차익거래와 지수펀입, IPO 참여, 기업 이벤트 트레이딩 또한 지속적으로 구사할 계획입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